

‘KBS 열린음악회 강화군 특집’ 군민과 함께하는 가을 축제 18일 개최



강화군 군민이 기증한 수목으로 만든 화개정원



화개정원 전망대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18일 교동도 화개정원에서 ‘KBS 열린 음악회’를 개최한다.

군민과 함께하는 가을 축제인 ‘KBS 열린음악회’는 개장을 앞둔 교동도 화개정원에서 열린다.

아나운서 이현주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김호중, 김경호 밴드, 빅마마, 데이브레이크 등이 출연해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멋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접경지역인 평화의 섬 교동도에서 실향민들을 위로 하고, 전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한편, 교동도는 북녘 땅과는 거리가 2.6km에 불과한 접경지역으로 오랜 시간 소외된 도서지역으로 남아 시간이 멈춘 섬이라고도 불린다. 최근 교동도 화개산에 수도권 최고의 휴식형 가족공원 ‘화개정원’이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다.

화개정원은 화개산 213,251㎡에 총 사업비 382억 원을 투입하는 강화군의 역점 사업이다. ▲스카이워크형 전망대 ▲화개정원 ▲모노레일(민자) 등이 들어서며, 온 가족이 정원같은 공원에서 편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휴양시설로 조성했다.

특히, 전망대에서는 한강하구와 서해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북녘 땅에 흐르는 예성강을 따라 펼쳐진 연백평야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모노레일을 통해 정원입구에서 전망대까지 2km를 궤도 열차로 편하게 이동하며 화개정원의 빼어난 풍광을 조망할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들께서 기증한 수목으로 조성한 화개정원에서 군민과 함께 가을 축제를 즐길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화개정원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즐기며 즐거운 추억을 남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열린음악회 행사안내 ▶ 강화군 홈페이지를 참고
 입장권 배부(관내) ▶ 12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입장권 배부(관외) ▶ 강화군 관광안내소 (한옥관광안내소, 터미널관광안내소)에서 1인 2매씩 선착순 배부

강화군, 서도연도교 건설·관광인프라 확충



서도 연도교 건설 발맞춘 관광인프라 확충

강화군은 ‘서도연도교’ 건설에 발맞춰 관광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주문도 관광기반연결도로공사 ▲불음도 관광기반연결도로공사 ▲대빈창·뒷장술 해수욕장정비사업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2023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확보한 169억 원 중에서 상당 부분을 ‘서도면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투입한다.

접경지역이자 도서지역인 서도면 주민들의 오랜 희생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강화는 수도권으로 분류돼 타지역보다 더 큰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그러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도면 주민들은 서도연도교 건설과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소득·일자리 증가, 교통여건 개선, 관광 활성화 도모 등 지역발전과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화군은 서도면 이외의 교동면, 삼산면 등 접경지 군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23년 특수상황지역개발 공모 신규 사업으로 ▲석모도 하리항 정비사업(25억) ▲석모대교 야간경관조명사업(7억) ▲북성리 생활여건개선사업(20억) ▲아차도 내부도로망 확충사업(35억) 등 11개 사업에 내년부터 최대 5년간 약 326억 원을 투입한다.

〈서도면 관광인프라 확충 관련 추진사업〉

(단위 : 백만원) -자료출처:강화군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량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8개	24,800	'20 ~ '27
주문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개설	주문도	도로 확 · 포장 L=4.5km	5,500	'20 ~ '27
불음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개설	불음도	도로 확 · 포장 L=4.2km	5,300	'20 ~ '27
아차도 관광기반 연결도로 개설	아차도	도로 확 · 포장 L=2.2km	3,500	'24 ~ '27
태양광발전 테마마을 조성사업	아차도	아차분교 태양광발전시설을 테마로 한 마을경관 조성	2,800	'24 ~ '27
관광 기반시설 정비사업	불음도	조개골, 영뜰해수욕장 종합정비	1,800	'25 ~ '27
살곶이항 경관정비사업	주문도	선착장 경관정비	1,400	'24 ~ '26
주민 복지·문화·관광 공간 조성	불음도	복지·문화·관광 공간조성 (폐교활용)	3,000	'24 ~ '27
대빈창·뒷장술 해수욕장 종합정비	주문도	해수욕장 종합정비	1,500	'22 ~ '24

연차별 계속 추진사업으로는 상습 물부족 해소를 위한 ▲교동지구 농업용수공급사업 ▲산이포 민속마을 조성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해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격차 해소와 입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접경지 군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강화군은 주문도~아차도~불음도를 잇는 ‘서도연도교’ 건설사업을 연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740억 원(주문연도교 300억 원, 불음연도교 440억 원)을 들여 서도면 주문도·아차도·불음도 등 3개 섬을 연결하는 총연장 1.6km 규모의 해상 교량 2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7년부터 추진됐으나 지난 2019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0.02, 종합평가(AHP) 점수는 0.483를 얻는 데 그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다.

실제로 KDI의 ‘2019년도 서도연도교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서도연도교 건설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 비율(B/C)은 0.02, 순현재가치(NPV)는 657.48억 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강화군은 고심 끝에 사업 구간을 1·2단계로 쪼개 총사업비 740억 원을 각각 300억 원과 440억 원으로 나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인 500억 원을 우회하였고,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투자심사 요청해 지난 6월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라는 쾌거를 이뤘다.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되면서 ‘서도연도교’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본 사업은 접경지 군민들의 정주여건과 의료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등을 기반으로 추진한 것이어서 경제적 효용만으로 사업성을 따질 수만은 없는 사업임을 강조하며 구뚝발이 닳도록 중앙부처, 국회, 인천광역시 등을 찾아 다니며, 노력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안된다, 어렵다고 말하기 보다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되는 방향을 찾아 혁신을 이룬 대표적인 성과”라며 “서도면 지역의 연도교 건설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2단계 불음연도교 건설사업도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10월 직원조회에서 군민체감 '군정혁신' 강조

유천호 군수 "역점사업 전략적·체계적 신속한 추진 당부"



10월중 직원조회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4일 '10월 직원조회'와 '확대 간부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유천호 군수는 직원조회에서 "지난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통해 2023년도 군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며 "안된다, 어렵다고 말하기보다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되는 방향을 찾아 군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간부회의에서는 읍·면별 현안보고를 시작으로 ▲청렴문화 조성 ▲연공서열 탈피 근무성적평정 실시 ▲가을 문화행사 ▲남문 공영주차장 경관조명 ▲가을철 식중독 예방 ▲농촌체험·휴양마을 현지지도 ▲수산자원 패류종패 살포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고구저수지 경관조성 등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2023년도 역점사업인 ▲강화 제3·4 장학관 건립 ▲길상공원 조성 ▲외포지구 종합어시장 건립 ▲화개정원 관광자원 확대 ▲서도연도교 건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천문과학관 건립 ▲창업 공유 오피스 설립 ▲월선포~상용 해안도로 조속 개설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구간 신규교량 우선 건설 ▲조업한계선 확대 추진 등은 사업예산 반영 즉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선제적·전략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유천호 군수는 "민선 8기도 벌써 출범 100일을 앞두고 있다"며 "국·과장이 앞장서 역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f]

강화군,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유천호 군수 "풍요로운 강화군 구현 위해 청렴과 적극행정 강조"



공직자 청렴교육_강화군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29일 군청 진달래홀에서 직원 18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김정현 청렴교육전문강사를 초청해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청렴의 관점, 청렴의식, 행복한 조직을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부정청탁, 이해충돌 상황 등에 관한 실제 사례를 영상 자료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유천호 군수는 "민선 8기 군민의 삶이 바뀌는 풍요로운 강화군을 위해 공직자의 청렴과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f]

- 최벽하 기자

강화군의회, 농협 및 관련단체 간담회 개최

‘쌀값 하락 대책 및 쌀 소비 촉진’ 관련 대책



‘쌀값 하락 대책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_강화군의회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는 지난달 30일 강화군의회 의원사무실에서 농협 및 관련단체와 함께 ‘쌀 값 하락 대책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국내 쌀값이 최근 세 차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올해 신곡 가격 불안요소 작용으로 쌀 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2개 농협장은 농협에서 수매한 쌀은 올해 쌀값 폭락으로 인해 지역 농협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곡에 대한 시장가격보다 일방적인 높은 가격 수매는 전체 조합원의 손실로 이어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호소하였다.

특히, 쌀 수급정책 전반에 대해 농협·농업단체 의견 수렴을 위해 추진되었다.

군 농정과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생산자와 공급자의 다양한 입장을 청취하며, 현재 강화군의 강화섬쌀 관련 지원 사업과 쌀 재배 품종 등에 대한 설명과 강화군 쌀작목연합회장은 시장격리곡의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쌀값 폭락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이로 인해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금지가 많이 사라지고, 생산비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관련대책을 촉구했다.

박승한 의장은 “강화군의회는 농민들의 아픔을 가슴으로 공감하며, 쌀값 하락 대책 및 쌀 소비 촉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하며 “강화섬쌀의 품질관리와 홍보, 시장격리곡의 배분 등의 문제에 있어서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1**

강화군의회, 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승진인사 시행



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승진인사 시행_강화군의회



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승진인사 시행_강화군의회

- 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승진인사 시행
- 군 의회 역량 강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 다할것

인천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자체적인 첫 번째 승진임용을 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13일,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임용이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강화군의회에 따르면 5일(수) 군의회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첫 승진 인사를 의결했고, 6일(목) 의장실에서 직원에 대한 승진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승한 의장은 임용장 수여식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 임용장을 수여하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군의회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 최백하 기자

강화군, 가축전염병 선제방역, 차단방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총력으로 청정지역 만든다



방역차량_축산과



광역방제차량_축산과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겨울철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선제 방역에 나섰다.

군은 방역상황실을 구성해 내년 2월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 축산단체, 농가와 함께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농장별로 소독용 생석회, 방역용품 등을 배부해 자발적인 축사소독을 독려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상시 예찰을 강화했다. 또한, 손길이 닿지 않는 방역취약지는 드론을 활용한 방역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제역 예방을 위해 공수의가 접촉취약 대상 소규모 농가를 직접 방문해 예방접종을 하고, 방역점검과 지도에 나섰다.

우선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상시 운영체제로 확대해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모든 차량을 소독하고, 차량 GPS를 통해 역학 및 이동제한

위반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인천강화옹진축협과 공동방제단을 운영해 소규모 농가의 소독을 지원하고, 철새 출현지, 하천 및 주변 도로를 주기적으로 방역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에는 사양 및 질병 관리를 위한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해에 대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팜스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과 농가 간에 방역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농가의 철저한 방역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농장주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상황실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강화군 축산과 ☎ 032-930-4532

10년 넘은 건물 및 부대시설 보수비용 최대 50% 지원 강화군,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 확대



건축허가과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조례가 정하는 일정 분야의 시설물이 노후돼 보수가 필요할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50% 이내)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입주자 등이 부담하게 된다.

사업에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재난 발생 우려시설 등에 대한 보수와 장애인의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치·개선 등이 포함된다.

군은 올해에만 오래된 빌라, 연립주택 등 36개소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지원하며 주택 복지를 강화했으며, 지난 8월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옥상 방수층 파손으로 인한 누수·누전의 위험과 재해위험이 있는 옹벽·석축 등 보수·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 지원범위를 확대해 신청을 받는다.

유천호 군수는 “본 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 - 최백하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군민의 삶을 질을 끌어올리고 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강화군, 쌀 팔아주기 운동 대대적으로 전개

유천호 군수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농·어촌 만들겠다”

강화도의 넓은 들녘에서는 ‘강화섬쌀’ 수확이 한창이다.

‘강화섬쌀’은 풍부한 일조량 속에 미생물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간척지 토양에서 거친 해풍을 이겨내고 자라 품질이 좋고 밥맛이 뛰어나다.

또한, 강화군은 농가와 소비자가 원하는 최고품질의 고부가가치 쌀을 생산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농촌진흥청(국립식량과학원), 농협,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에 나서 ‘나들미’를 개발했다. 더 찰지고 더 맛있어 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든 벼 재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45년만의 유례없는 쌀값 폭락

쌀값은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는 데 비해 공급은 크게 줄지 않으면서, 다른 물가가 오르는 것과 달리 급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 평균 쌀 생산량 감소율은 0.7%인데, 소비량 감소율은 1.4% (1인당 소비량 감소율 2.2%) 수준을 보여왔다.

이는 소비품목 다양화와 식습관 서구화, 1인 가구 증가 등 간편식 선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연간 1인당 쌀 소비량 역시 2005년 80.7kg에서 2021년 56.9kg으로 급감했다.

이에 산지 쌀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9%나 폭락했으며, 9월 15일 산지쌀값은 kg당 47,250원에 불과해 농민 수익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지재고도 급증해 8월말 기준 농협 재고는 31만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톤 많은 상황이어서 쌀값 하락을 구조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농민들의 고통 역시 가중되고 있다.

쌀 팔아주기 운동 대대적으로 전개

강화군은 농업인의 경영안전을 위해 ‘강화섬쌀 팔아주기’ 운동에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 7월 인천광역시에 ‘강화섬쌀 팔아주기 운동’을 건의하고, 2021년 산 시장격리곡 7,068톤 매입해 쌀값 안정과 재고량 해소를 위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관내 공공기관,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우리고장 ‘강화섬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시 각 군·구의 지역 행사에서 ‘강화섬쌀 이용’과 ‘강화섬쌀 팔아주기 운동’ 참여를 당부하고, 자매결연 도시 등에는 직거래 장터에서는 강화섬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유천호 군수는 “인천광역시에서 연간 쌀을 59,55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약 5만톤을 강화군에서 생산하고 있다”며 “인천시민 3백만 명이 강화섬쌀을 이용해 주시면, 100일도 안되서 쌀 연간 생산량을 소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정부에서도 쌀값 안정을 위해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조치 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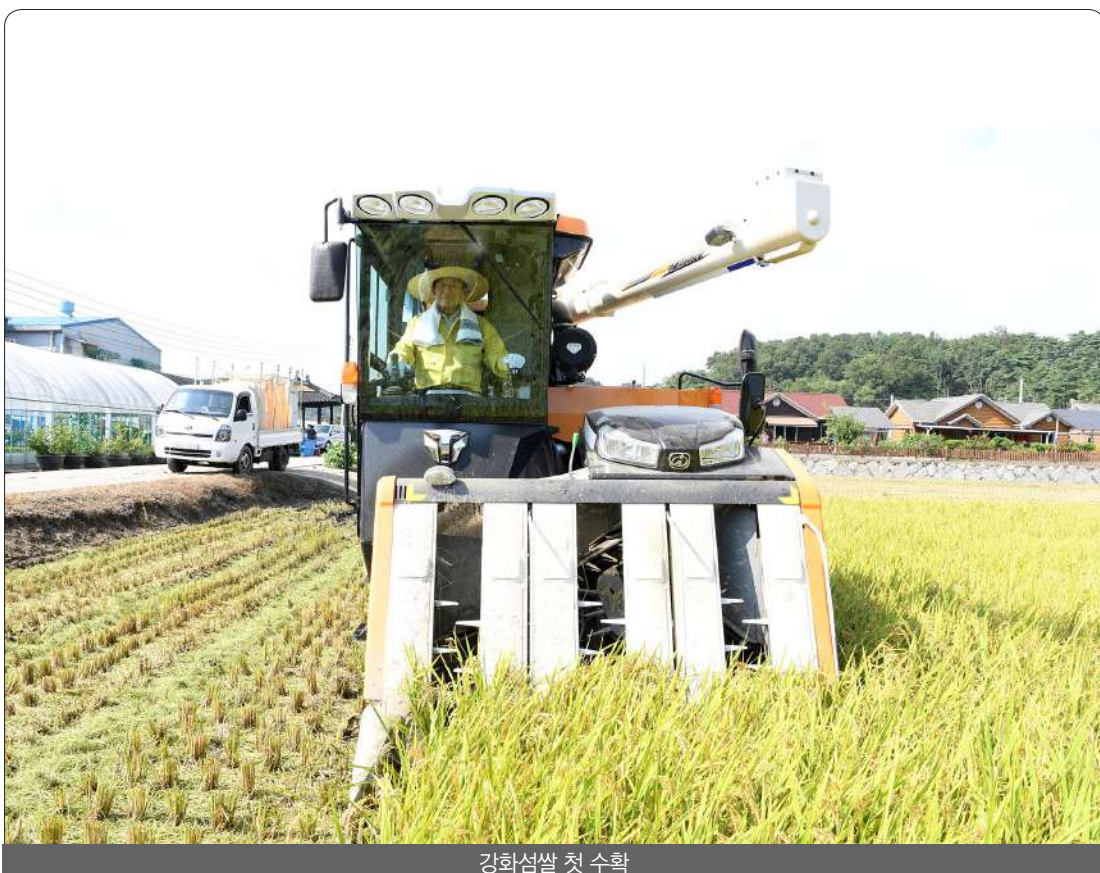
강화군,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농·축·어업 실현 ‘두팔’

강화군은 ‘경쟁력 있는 농·축·어업, 잘 사는 농·어촌 실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해 농·축·어업분야 조합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안 사업인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지원 ▲수산물 유통물류비(택배비) 지원사업 ▲패류종패 살포 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임업·산림 공익 직불제 추가 신청 ▲벼 적기수확 및 적온건조 기술 지도 등 농·축·어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 과감하게 시책으로 유통 판로를 확대하고, 첨단농업 육성사업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농·축·어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 농어촌이 더욱 잘 사는 풍요로운 강화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 최벽하 기자



강화섬쌀 첫 수확

외래품종 대체할 벼 신품종 '나들미' 보급, 눈 앞! 강화군, 밥맛 좋고 병충해에 강한 강화섬쌀 '나들미' 육성



나들미 품종이 개발되는 논

강화군이 강화섬쌀 새로운 벼 종자 '나들미'의 조기 보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9년 강화군과 농촌진흥청은 종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요자 참여형 벼 품종 개발사업(SPP:Stakeholder Participatory Program)'을 진행하게 되었다. 강화군 '나들미'는 국내 우수 품종 개발을 통해 외래품종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나들미'는 SPP사업을 통해 강화지역에 맞는 벼 품종으로 개발·육성된 신품종으로 외래품종인 추청보다 밥맛이 뛰어나고, 병충해 등 재배

안정성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나들미'는 강화나들길을 따라 이어지는 들판에서 강화가 품고 길러낸 자연과 땅 위의 좋은 기운을 받고 자란 잘 익은 벼를 의미한다.



나들미 정조



나들미 현미



나들미 백미

군은 '나들미'의 안정적인 종자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자체 채종단지 1ha 조성했으며, 내년에는 시범재배 단지를 100ha로 확대 보급한다. 장기적으로 25년까지 1,000ha로 확대할 계획이다. 24년부터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농가에 공급한다.

유천호 군수는 "종자는 농업의 근본이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이다"며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품질의 차별화된 강화섬쌀 '나들미' 보급으로 농업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배추·무 후기관리 및 병해충 방제 철저 당부



김장용 배추 병해충 방제 철저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김장용 배추, 무의 생육 촉진을 위해 물 관리, 웃거름 시비, 병해충 방제 등 생육 후기 재배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년도 8월 정식(파종)시기 이후 기상 여건은 전년과 비슷한 편으로 잎의 크기, 뿌리발육 등 생육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그러나 최근 잦은 강우와 큰 일교차로 인해 무름병, 노균병, 나방류 등의 병해충 발생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배추 포기가 차고 무의 비대가 이루어지는 10월 초·중순 이후 물과 비료 등 각별한 생육 후기관리와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

배추에서 피해가 가장 큰 무름병은 잎의 밑 부분에 수침상의 반점이 나타나다가 담갈색 내지 회갈색의 병반으로 썩고 물러지며 악취가

심하게 난다.

무름병은 배수로 정비와 예찰을 철저히 하여 발생 초기에 적용약제를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맞도록 사용해 방제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작 시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화분과나 콩과 작물로 윤작해야 하며, 병든 식물체는 발견 즉시 제거하고 수확 후 병든 식물체가 남지 않도록 한다.

배추의 경우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10월부터 포기가 차기 시작하는 결구 초기로 하루 10a당 200L의 물을 흡수하므로 밭이 건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토양이 건조해지면 석회결핍증 등 생리장해가 발생하고 포기나 구가 작아지므로, 관수시설이나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해 물이 부족하지 않게 철저한 물 관리를 해야 한다.

아울러, 배추와 무의 생육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웃거름은 정식(파종) 후 30일부터 15~20일 간격으로 3~4회 시비하며, 생리장해 발생을 대비해 봉소 및 칼슘 등을 엽면시비 해주는 것이 좋다.

군 관계자는 "품질 좋은 김장용 배추와 무를 수확할 수 있도록 병해충 방제와 생육 관리에 힘써야 할 시기이며 농약 살포 시에는 적용약제를 사용하고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최백하 기자

하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 나눔을 위한 보리 파종 &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보리파종_하점면


강화군 하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심양섭)는 지난달 30일 이웃 나눔을 위한 보리 파종 행사를 가졌다.

심양섭 위원장은 “때마다 농작물을 가꾸느라 힘들기도 하지만 나눔을 받고 좋아하는 이웃을 보면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웃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보리파종_하점면

김용선 하점면장은 “바쁜 수확기에도 나눔을 위해 고생하신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그 마음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홀몸어르신 생신축하사업, 거동불편자 이동식 변기 지원, 저소득층 보행기 지원, 치매예방 퍼즐 지원 등 매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나부터! 오늘부터!! 실천해요!!! 3따 3고 교동면, 생활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캠페인 전개

강화군 교동면은 지난달 30일 대룡시장에서 생활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장단과 자원관리도우미,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인 ‘3따 3고’ (병 따로 캔 따로 페트병 따로, 배출! 라벨은 떼고, 이물질은 씻고, 박스는 접어 배출!)를 안내하는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배부했다.

황교익 이장단장은 “이른 아침부터 캠페인 활동에 참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나부터! 오늘부터!! 실천해요!!! 슬로건에 맞게 오늘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이 솔선수범하여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조현미 교동면장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정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_교동면

내가면 외포리 포구, 가을 관광객 맞이 대청소 추진

강화군 내가면(면장 차은석)은 지난달 30일 내가면 노인회, 어촌계, 상인회 및 주변 유관기관과 함께 외포리 포구 일원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외포리 포구는 최근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만큼 쓰레기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

조재관 노인회장은 “마을 미관을 저해했던 쓰레기를 직접 청소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차은석 내가면장은 “깨끗한 내가면을 위해 바쁜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환경정화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관 단체와 함께 깨끗한 내가면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외포리 포구 대청소_내가면

양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 생신축하, 안부나눔의 손길 전달



생신축하사업_양도면




생신축하사업_양도면

강화군 양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진식)는 지난 4일 관내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신축하 사업을 추진했다. 찾아가는 생신축하 사업이란 마을 별로 고령의 홀몸어르신 한명을 선정해 축하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양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10월 생신을 맞이한 홀몸어르신 맥을 직접 찾아가 떡 케이크와 선물을 전달하며 생신을 축하하고 안부를 살폈다.

유진식 위원장은 “어르신들께서 생신날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을 더욱 살피고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순이 양도면장은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해주시는 양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행복한 양도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길상면 새마을부녀회 강화 섬 포도 축제 음식 부스 수익금 기탁

강화군 길상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이미선)는 지난 5일 성금으로 백만원을 면사무소에 기탁했다.

지난달 강화 섬 포도 축제 음식 부스를 운영한 수익금을 기탁해 더욱 뜻깊었다.

이미선 길상면새마을부녀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재구 길상면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해 주신 부녀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길상면이 행복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새마을부녀회 성금 기탁_길상면

송해면 노인회, “경로당 활기 되찾기”회의 개최


강화군 송해면 노인회(회장 최정명)는 지난 27일 관내 노인회장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경로당 활성화와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알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송해면 노인회는 침체된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노인회 회원들이 함께 화합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농번기에는 쉼터로 이용하여 침체된 경로당에 활기를 불어 넣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와 더불어 해병대2사단과 협업으로 추진된 민통선 점문소의 통·폐합, 10월 개최 예정인 화개정원 열린 음악회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최정명 회장은 “송해면 노인회는 강화군에서도 매우 모범적인 노인회로 손꼽히는 만큼 앞으로도 귀감이 될 만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노인회 회의_송해면

유정진 송해면장은 “경로당 활성화와 함께, 알아 두면 좋은 다양한 정보 알리기 역할을 톡톡히 하는 노인회장님들께 매우 감사하다.”며, “면에서도 노인회 및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최벽하 기자

민주평통 강화군 협의회, 3분기 정기회의 개최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담대한 구상”



3분기 정기회의



3분기 정기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강화군협의회(회장 최금자)는 30일 강화군청 4층 진달래홀 회의실에서 자문위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자문위원의 역할과 실천 과제 등을 논의했다.

3분기 통일의견 수렴에 앞서 ‘2022년 2분기 의견 수렴 결과 보고’가 진행되었다. 2분기 의견 수렴 주제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의 한반도 건설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안’이었으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 △통일준비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민주

평통 자문위원으로서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의 내용이 수렴되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국제사회의 반응과 한반도 위기관리의 중요성’ 등 국제 정세 및 북한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92조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각 협의회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양사면, 강화평화전망대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대박'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_양사면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_양사면

강화군 양사면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우동)는 지난 1일부터 강화평화전망대와 남북1.8평화센터 주차장에 판매부스를 설치하고, 양사면에서 갓 수확한 우수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내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농촌지도자회 강화군연합회의 ‘2022 강화농업 알리기 행사’와 연계해 진행 중으로 관내에서 직접 수확한 쌀, 밤, 고춧가루 및 햅쌀로 만든 떡 등을 판매하며, 농촌지도자회원의 색소폰 연주 외 축하공연도 마련되어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우동 위원장과 김길용 농촌지도자회장은 “앞으로도 직거래장터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보다 신선하고 착한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자 양사면장은 “코로나19로 농가들 또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농산물 소비촉진과 판로개척을 통해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최백하 기자

강화군, 재난관리자원의 상시 자원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6일 강화군전문건설협회(회장 김종열)와 재난관리자원의 상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강화군-강화군전문건설협회 간 건설기계 장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비상연락망 구축 ▲건설기계 장비 지원 요청 ▲화재, 태풍 등 각종 재해 예방과 재난 응급복구 현장에 필요한 장비 신속 투입 등이다.

이번 협약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 안전을 최우선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강화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한 차원 더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상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재난대비 재난관리자원 협력체계 구축 협약식



재난대비 재난관리자원 협력체계 구축 협약식

강화군가족센터 ‘꿈사다리’ 장학금 수여식 개최

강화군가족센터는 지난 4일 다문화 우수대학생 장학금 수여식 ‘꿈사다리’를 개최했다.

다문화가족 자녀 우수대학생 장학금 지원 ‘꿈사다리’는 포스코 후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최, 강화군가족센터 주관 ‘2022년 결혼이주여성 자립역량강화 및 자녀 진로지원’ 공모사업이다.

센터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열정과 성실한 모범 우수대학생 3명을 선정해 각 4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지원의 혜택을 받은 대학생들은 강화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청소년의 멘토로 활동하게 된다.

임경숙 센터장은 “미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꿈에 매진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 미래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



‘꿈사다리’ 장학금 수여식 개최_강화군가족센터.

어르신과 따뜻한 동행! 강화군, ‘남산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강화군 남산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상배)은 지난 28일 지역 어르신 20여 명을 초대해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남산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2022년 3월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으로 설립된 주민공동체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다.

강화군행복센터에서 남산행복카페와 푸드스토어를 운영하며, 수익의 일부는 남산마을 등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점점 쌀쌀해지는 가을철을 맞이해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푸드스토어(반찬가게)에서 직접 조리한 추어탕을 대접했다.

김상배 이사장은 “남산마을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최벽하 기자



어르신과 따뜻한 동행_남산마을관리

강화군, 정신건강의 날 기념 ‘마음 스위치’ 캠페인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마음 스위치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정신건강 홍보주간으로 정하고 ▲온라인 정신건강 퀴즈 이벤트 ▲‘정신건강 정보 창고’ 온라인 북 ▲마음건강 무인검진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또한, 지난 7일 강화터미널, 풍물시장에서 정신건강 부스를 열고 ▲심리상담 ▲우울·스트레스 검사를 비롯해 ▲O·X 정신건강퀴즈 등을 진행하며 정신건강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마음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나 편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마음 스위치’ 캠페인 강화군

강화군 지방행정동우회, 가로환경 정비 활동 펼쳐

강화군 지방행정동우회(회장 방명일)는 30일 선원면 찬우물 삼거리 일원에서 가로환경 정비활동을 실시했다.

강화군 지방행정동우회는 강화군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되어 매년 정기적인 봉사활동 함께 재능기부를 통해 읍면사무소에서 민원상담 등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화화분 100여 개를 설치하고 주변 제초작업과 쓰레기수거 활동을 이어갔다.

방명일 회장은 “가로환경 정비활동을 통해 회원 화합 및 자긍심 고취는 물론 주거환경 개선과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한 고장으로 만드는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1**



행정동우회 활동

선원면 강화군자원봉사센터, “찾아가는 토탈자원봉사활동” 실시

강화군 선원면(면장 서광석)은 지난 28일 금월2리(기세미) 경로당에서 강화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토탈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토탈자원봉사활동」은 강화군자원봉사센터의 주민복지 특화 사업으로 매년 경로당을 중심으로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다. 이날 활동은 재능기부 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칼같이, 이미용(커트), 파라핀 테라피, 장수사진 촬영, 간편식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조기 선착순 마감일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칼같이 서비스를 비롯하여 모든 활동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저기서 즐거운 이야기와 웃음소리로 가득찬 행사였다.

김흥식 금월2리(기세미) 노인회장은 “마을 주민들을 위해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다들 만족해하셔서 제가 더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서광석 선원면장은 “매년 헌신해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자원봉사센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원면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1**

- 최백하 기자



찾아가는 토탈 자원봉사활동_선원면




찾아가는 토탈 자원봉사활동_선원면

어린이 올바른 식습관 및 위생 습관 형성 강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 인형극 개최

강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은미)는 지난달 28일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마을 구출 대작전!! 영양 인형극'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에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14개소에서 1회 차 289명, 2회 차 325명의 어린이가 관람했다. 건강을 위해 골고루 먹기, 달고 짜게 먹지 않기, 올바른 손 씻기에 대해 어린이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인형극으로 설명했다.

김은미 센터장은 "앞으로도 영양·위생 관련 인형극을 운영해 어린이들에게 즐거움과 더불어 올바른 식습관 및 위생 습관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 인형극 개최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부모교육 실시 강화군, 자녀의 성격유형 맞춤형 양육방식 교육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부모교육 실시_강화군

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현주)는 지난달 29일 강화군 행복센터 회의실에서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부모교육은 GEM심리상담연구소 부모교육 전문가(이인영 소장님)를 초청해 타고난 성격유형에 따른 가족역동의 이해와 자녀의 성격유형에 맞는 양육방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자녀 학습 성격유형검사를 실시하고 유형에 따른 학습기술 지도와 생활지도 방법에 대한 개별 상담을 진행해 호응을 받았다.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부모교육 실시_강화군

이날 교육에는 사전에 성격유형검사를 신청한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 양육자 등 총 40명이 참석했다.

부모교육에 참여한 이 모 씨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성격유형과 양육태도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어 좋았고, 성격특성에 맞는 양육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자녀양육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현주 센터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들을 선정하여 부모교육을 더욱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송기훈 기자

Photo NEWS 내고향을 훈훈하게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



불은면 꽃식재(광성보)



불은면 꽃식재(코스모스)

강화화문석 문화관

꽃 화(花), 무늬 문(紋), 자리 석(席)



강화화문석 문화관



강화군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이어 온 강화의 민족문화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화문석의 발상지인 송해면 양오리에 총 27억 3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강화화문석 문화관을 건립하였다.

꽃 화(花), 무늬 문(紋), 자리 석(席), 꽃무늬를 놓은 돛자리.

강화 화문석은 고려 중엽부터 가내 수공업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전해지며, 조선시대에는 [세종실록], [임원경제지], [교동군읍지] 등 여러 문헌에서 강화 화문석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일찍부터 강화도는 고급 완초 생산지로 고려시대 39년 동안 수도 역할을 담당하던 강화는 왕실 진상품에 쓰이는 고급 돛자리 생산지로 유명했다.

조선 말, 고종 황제(조선 제 26대 왕)의 어명으로 돛자리 제작자인 양오리의 한충교 선생은 연구를 거듭해 순백색의 완초를 화려하게 물들이고 독창적 문양을 새긴 '강화 화문석'을 개발해 낸다.

한충교 선생의 연구로 원앙, 산수, 완자, 민화 등 갖가지 소재를 화문석에 적용하며, 강화 화문석은 '화방석(꽃무늬 방석)', '꽃삼함(꽃무늬 수납 상자)' 등으로 제작되며 더욱 발전해 나갔다.

또한 강화 화문석은 여름철에는 시원하면서 수분을 잘 흡수하고 겨울에 냉기를 방지해 주기 때문에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생활용품이다. 게다가 오래 사용하여도 윤기가 강하며 부스러짐이 없다.

이로써 강화 화문석은 명실상부 대표 명품 돛자리로 자리매김하며, 일제강점기 민족말살정책을 펼치던 일제도 화문석만큼은 높은 품질을 인정해 오히려 장려했다.

화문석 한 장에 60만 번의 손길

화문석의 재료가 되는 왕골은 사초과(莎草科)에 속하는 1~2년생 풀로서 논밭이나 습지에 심고 꽃줄기로 돛자리를 만든다. 7~8월 수확해 건조된 왕골은 아래 과정을 통해 화문석으로 제작된다.

화문석 제작과정

1. 날실로는 나일론실을 준비하여 고드랫돌에 감아 놓는다.
2. 고드랫돌에 감긴 날실 두 개를 하나로 묶어 1.5cm 간격으로 자리틀에 매단다.
3. 왕골 겹감과 속감을 한데 모아서 엮고, 무늬는 도안에 따라 색 왕골을 덧대고 엮는다.
4. 휘감(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꿰매는 일)은 두 쪽 왕골을 남겨두고 세 번째 왕골을 꺾어 안감 속으로 밀어 넣고 휘감아 엮는다.
5. 화문석이 다 짜여지면 나일론실로 매듭을 지어 끝을 맺은 후 완성시킨다.

강화에서는 딸이 세명이 되면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이는 3인이 한 틀에 앉아 공동으로 제작하는 화문석 엮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성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통 세 사람이 한 장의 화문석을 짜는데 닷새쯤 걸리고, 둘이 만들면 1장 완성하는 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강화, 전통의 맥(脈)을 잇다.

현재 왕골돛자리는 대부분 해외에서 생산되어 마감만 국내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강화 화문석은 왕골재배부터 제작과정까지 100% 전통 방식을 고수한다. 이에 강화 화문석은 전국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오랫동안 왕골공예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강화도에서만 화문석이 연간 4만 9천 점이 생산됐다. 당시 강화 농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천여 가구가 화문석 제작에 종사했다.

세월이 흐르며 바구니나 신발 등의 왕골을 이용한 전통생활용품의 수요는 사라졌지만 염색과 채색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강화 화문석은 아직도 사랑받고 있다

왕골공예마을 가는 길

강화군에서는 왕골공예마을 가는 길이란 주제의 나들길 18코스를 운영중이다. 강화화문석이 경유지에 포함되어 있다.

강화 화문석의 역사와 우수성, 왕골공예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변천과정을 관람하고, 현지 공예인들과 함께 화문석과 왕골소품 등을 직접 만들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 - 최백하 기자

기고

강화의병장 이능권의 나라사랑



신 봉 기
강화투데이 발행인

강화군은 현재 단순히 지역구분상 하나의 군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나라의 역사속의 강화도는 예로부터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으며, 여러 역사적인 사건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곳이었다. 또한, 그러한 장소인 만큼 나라사랑이 넘치는 곳이기도 했다.

오랜 역사 한 가운데 어찌보면 외딴 곳으로 비추어진 강화에는 유배지로도 손꼽혔지만, 유배 온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의 뿌리가 강화에 스민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이번 기고에서는 1907년 고종이 당시 개신교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기 위한 특사로 정사 이상설, 부사 이준, 통역관 이위중과 이들을 도울 호머 헬버트를 파견하였던 헤이그 밀사의 호위를 하였던 강화의 의병장 이능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지금도 강화의 낭만여행의 핫플레이스중 하나인 더리미미술관이 있는 강화도 갑곶리 더리미 별판 자리는 독립운동의 첫 불씨가 의병전투를 비롯해 항일투쟁이 치열했던 곳이다.

1907년 8월부터 강화 의병대장 이능권, 연기우을 필두로 삼백여 명의 의병이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고귀한 목숨을 잃은 곳. 일본 정규부대와 맞 붙어 싸운 더리미 전투장에서 일본군이 강화 해협으로 상륙해서 많은 희생을 치렀고 이외에도 3.1 만세 시위를 벌였던 강화읍사무소가 있는 자리나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선두교회 자리, 족실방죽과 전등사 등 서울의 관문 강화에는 많은 독립운동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일제 강점기때 고종은 을사늑약에는 옥새가 찍히지 않아 무효란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특사를 헤이그까지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육지나 바다를 철통같이 감시하던 일본군의 감시를 뚫고 특사가 안전하게 헤이그로 향할 수 있도록 지켜줄 유능한 호위 무사가 필요했다.

여기에 선발된 사람이 강화의병장 이능권(1864~1909)이었다. 그는 고종의 밀명을 받들어 특사를 무사히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보내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본국으로 귀국했지만, 특사들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소식에 울분이 쌓였다. 게다가 이를 빌미로 고종까지 쫓겨나게 되자 고향인 강화도에서 의병을 일으키게 됐고 이능권이 의병의 기치를 들었다는 소식에 몰려드는 의병이 300여명에 달했다.

이능권은 의병들을 훈련시킨 후 신식 무기로 무장해 강화도에서 일본군과 여러 차례에 접전을 걸치면서 일본군에 상당한 타격을 가했다. 이에 일제는 일본군과 순사대 등 400여 명이 주둔하면서 매일같이 의병 토벌에 나섰고 이에 이능권은 강화도를 나와 경기도 부평을 거쳐 서울에 머무르다가 순사대에 의해 12월 13일에 중부동의 윤창하 집에서 체포되었고 1909년 9월 27일 경성공소원에서 교수형이 확정되어 11월 8일 순국하였지만, 그가 쏘아 올린 항일운동의 불씨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가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의병이었기에 그 이름마저 묻힐뻔 했었으나,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독립운동사연구소의 노력으로 발굴한 강화의병 관련 일본 기밀보고서를 통해 김용기, 이능권, 지홍윤 의병장이 이끌었던 의병부대 소속 의병장과 의병을 다수 찾아 내어 그 이름이 남게 되었다. 강화의병뿐 아니라 3·1독립만세의거, 국내외 반일투쟁 선두에 섰던 강화 출신 독립유공자를 발굴한다면 가히 일제에 항거했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의 중요한 획을 그었음이 확실하다.

이처럼 진정한 애국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소중하고도 고귀한 피를 흘려가며 나라를 위해 본보기가 되었던 인물들의 넋이 살아 숨쉬는 곳이 이 곳 강화다. 의병장 이능권이 우리에게 묻는다. 진정한 나라사랑은 무엇이냐고. 이름을 날리는 일도, 누군가를 선동하는 것도 아닌, 이토록 연일 시끄러운 소식으로 나라 안팎이 떠들썩한 요즘, 진정한 나라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되뇌이며 국민을 위한 국익의 길은 무엇인가를 우리 강화의 인물들의 발자취를 통해 돌아봄직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이다. 깊이 생각해 볼 노릇이다. [1]



사진제공 - 강화군

www.kbs.co.kr



KBS 역린음악회

강화군특집

출연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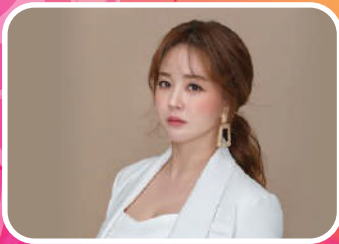
김호중



빅마마



김경호밴드



금잔디



데이브레이크



김용임



양방언밴드

장소 | 교동면 화개정원

일시 | 2022. 10. 18. (화) 19시

(17시 30분 입장시작)

티켓 배부 강화군청 홈페이지 참조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